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쟁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황홀한 이웃> 10 좋은 아침
9 00 신문이야기 풀리꾸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라운드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육성PD의 요리인류 킨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유적트크쇼 가요 1번지 55 바른길 고운말	1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맛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청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2015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수상작 <내려오는 한국근대사>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5 VJ특공대	2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재)	50 날씨와 생활 55 2015 한국민영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작 <검고 싶은 도시 울산>
2	00 한국경제 70년 그들이 있었다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추적 60분(재)	05 내꺼야 풀록 30 동물가족체험기 외일드 패밀리(재)	50 SBS 뉴스
3 00 직인직설	00 제48회 과학의 날 및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30 영상앨범 산(재)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영재 발굴단(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앙코르 코리아인 지오그래픽(재)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쇼 30 정애인의 날 특집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광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티빙 매거진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스페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사가장아름다우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10 시사타지 띠띠부띠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여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 극장<단팍>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한일수교 50주년특집 시사기획 창 55 스포츠	00 월화드라마 <블러드>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공모로 들었소>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특집다큐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12 10 나는 몸신이다(재)	30 독립영화관 <결정적 현상>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이육성PD의 요리인류 킨친(재)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15 나이트 라인 45 SBS 스페셜

오승환·유리 열애에 네티즌 '들썩'

스포츠 스타·연예인 커플 잇따라 탄생 '물라' 채리나·야구 선수 박용근 결혼 임박 추측

소녀시대의 유리(26)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마무리 오승환(33)의 교제 사실이 20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시아권에서 큰 사랑을 받는 국내 대표 걸그룹 멤버인 유리와 지난해부터 한신 타이거스의 '수호신'으로 활약 중인 오승환이 연인인 사실은 또 한 쌍의 연예인-스포츠 스타 커플 탄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나 호감을 가지며 5개월째 교제 중이다. 이들은 오승환이 입국한 지난해 말 지인들을 대동해 데이트를 즐겼고, 지난 3월 유리가 오승환을 오승환을 응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두 사람이 지난해 말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화제가 되며 스포츠와 방송·연예계 스타 부부와 커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 한국 축구대표팀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와 화혼을 밝혔다.

또 1년 전인 2013년 7월에는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이 인기 배우 한혜진과 결혼에 골인했다.

한혜진은 현재 임신 중으로 지난 2월 기성용은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엄지손가락을 입에 무는 이른바 '젓병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했다.

두 분야의 원조 스타 부부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결혼한 축구스타 허정무와 MC 최미나. 1984년 결혼한 농구스타 이종희와 배우 최란 부부가 대표적이다.

또 축구스타 안정환과 미스코리아 이혜원, 야구스타 이승엽과 모델 이소정, 축구스타 김남일과 아나운서 김보민, 야구스타 김태균과 아나운서 김석류, 축구스타 정조국과 탤런트 김성은, 야구스타 이용규와 탤런트 유하나, 축구스타 이도국과 미스코리아 이수진, 농구스타 임효성과 S.E.S. 출신 가수 슈, 축구스타 이호와 가수 양은지, 테니스 스타 전미라와 가수 윤종신 부부 등이다.

물라의 채리나와 야구 선수 박용근도 현재 교제 중으로, 최근 채리나가 라디오에 출연해 "얼른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진지하게 결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 결혼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화제 속에 결혼했지만 인연을 다하지 못한 부부도 있다. 야구스타 고(故) 조성민과 배우 고 최진실 커플은 당대 최고의 스타 부부였지만 비극적인 가정사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농구스타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 부부도 헤어졌지만 지금은 방송에서 서로의 활동을 응원해주고 있다. 가수 입장정은 폴킴과 가수 김현호와 자녀 셋을 낳지만 역시 이혼했다.

이처럼 이들 분야에서 많은 인연이 생겨나는 건 운동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방송 나들이가 잦아졌고, 이들이 각종 행사에서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스포츠계와 연예계 간에 인맥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운동선수들이 많



유리·오승환



박용근·채리나

이 출연한다"며 "이때 인연을 맺은 이들이 사석에서 서로 인맥을 소개해주면서 압인리에 여러 커플이 태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은퇴 후 연예계에서 활약 중인 운동선수들이 많아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자 활동이 바쁜 만큼 서로 이해해주는 폭이 넓다는 점도 한몫한다.

스포츠 스타들과 친분이 두터운 한 가수는 "운동선수들은 시즌과 비시즌이 명확하고 방송·연예인들도 스케줄이 빽빽해 웬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해주기 어렵다"며 "이들은 바쁜 일정을 배려해주는 폭이 넓다"고 말했다.

채리나의 매니지먼트를 들고 있는 고덕우 우엔컴 대표도 "박용근 선수가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채리나 씨의 일정에 맞춰주며 2년 넘게 한결같이 우직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채리나 씨도 박 선수의 운동선수 특유의 특성과 순수함에 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가 많아지면서 서로의 분야에 대한 동경도 만남으로 이어진다.

한 종합엔터테인먼트사 이사는 "요즘 운동선수들은 웬만한 스타 부럽지 않다"며 "두 분야 모두 대중적인 관심을 얻고 있어 호기심과 동경이 있다. 또 스타들만이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도 잘 보듬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BS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14:45 미연미이로봇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노래만 데이터)	15:00 반박반박 발명 클럽	19:50 극한직업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디큐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시계마을 타기투!	20:50 세계태마기행
07:15 곤(재)	11:20 세계태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생명의 땅 티라노스탄>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30 볼이더 구조대, 뽀잉	<남도 골목으로 가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콧피와 친구들(재)	21:50 EBS 디큐프라임
08:20 두다다(재)	13:10 글로벌 가족 정착기	17:00 WHO-위안극장(재)	<연애>
08:35 WHO-위안극장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리얼극장
08:50 콧피와 친구들	13:50 꼬마 철학자 휴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09:20 놀이더 구조대, 뽀잉(재)	14:15 피터팬이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24:05 지식채널e(재)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지파이터스	24:10 EBS 인문학 특강

14:45 미연미이로봇	19:30 EBS뉴스
15:00 반박반박 발명 클럽	19:50 극한직업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디큐 오늘
15:30 시계마을 타기투!	20:50 세계태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생명의 땅 티라노스탄>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16:30 볼이더 구조대, 뽀잉	<남도 골목으로 가다>
16:45 콧피와 친구들(재)	21:50 EBS 디큐프라임
17:00 WHO-위안극장(재)	<연애>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리얼극장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17:45 꼬마버스 타요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24:05 지식채널e(재)
19:00 지파이터스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01:40 <문학-알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14:00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02:30 <미적분 I>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	14:50 <미적분 I>
03:20 <수학 I> 15:40 <미적분 II>	15:40 <수학 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16:30 <수학 I>
05:00 뉴탐스런 <물리 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06:00 <생명과학 I> 18:10 뉴탐스런 <물리 I>	18:10 <수학 I>
06:40 <동아시아사> 19:20 <생명과학 I>	19:20 <수학 I>
07:30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00 <수학 I>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심주석의 수학 I>	<화법과 작문 & 뜻서와 문법 A형>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1:50 <문학A형>
11:00 <수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중간학업성취도<수학 3-1>
07:3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수학4-1>
08:00 물리관심사 시험대비강좌	16:20 <수학5-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50 <수학6-1>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20 초등중간학업성취도<수학 3-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5⑤⑥>
09:50 <수학1(상)>	18:40 <수학3(상)>
10:30 <역사2>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1:10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11:50 <수학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실전 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22:00 중학 중·기 시험대비<과학2-1>
13:50 중학 중·기 시험 대비 문제풀이	22:40 등업신공 <수학 3(하)>
<과학 1-1>	23:20 필독 <사회1>
14:30 등업신공 <수학2(하)>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 (음 3월 3일 丁卯)

子	48년생 참신함이 행운을 안겨다 줄 것이다. 60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 될 것이다. 72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84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34
丑	49년생 규칙적이야하면 효과를 본다. 61년생 부담스럽다면 피하는 것이 낫겠다. 73년생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썽을 피운다. 85년생 자신과 관련한 제3자의 일에는 관여치 마라. 행운의 숫자 : 42, 20
寅	38년생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보인다. 50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만 한다. 62년생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74년생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라. 86년생 망설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1, 59
卯	39년생 습관의 벽에 갇혀서 부자연스럽겠다. 51년생 전대미문의 형태도 나타나리라. 63년생 요인을 해소하자. 75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양상이다. 87년생 기운은 길하니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다. 행운의 숫자 : 82, 04
辰	40년생 행운의 운기가 느껴질 것이다. 52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64년생 과격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76년생 현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7, 27
巳	41년생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53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65년생 길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77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88

午	42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54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보인다. 66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하다. 78년생 허비하기 애매하니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마라. 행운의 숫자 : 91, 53
未	43년생 연계시켜서 종합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67년생 심혈을 기울인다면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79년생 근린 관계의 협조 체계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4, 67
申	44년생 솔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6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68년생 기묘한 성공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80년생 애초의 성향에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68, 55
酉	45년생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57년생 평상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69년생 기본 틀도 변형시켜야 하는 면모이다. 81년생 자기 외에 자신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10
戌	46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58년생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로를 확인 해 보자. 70년생 예리한 고찰이 선행 되어야 하느니라. 82년생 가뭇게 여기다가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9, 81
亥	47년생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 응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9년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호전 되어가고 있다. 71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83년생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 아니니. 행운의 숫자 : 41,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배우로서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해 짜릿했죠”

김혜수, 영화 '차이나타운'서 강한 카리스마

영화 '차이나타운'을 통해 조직의 보스로 변신을 시도한 배우 김혜수(사진)는 “세트장에 발을 디딜 때마다 온몸으로 전율이 느껴져 꼭 놀라게며 연기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김혜수는 20일 오후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차이나타운' 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영화를 결정하기 전에는 캐릭터가 어떨지 막연했기에 배우로서 도전하고픈 욕망이 생겼고 동시에 두려움도 정비례했다”고 설명했다. 한준희 감독이 연출한 영화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보관함에 버려져 차이나타운으로 흘러들어온 일영(김고은)과 일영을 비롯한 아이들을 데리고 돈을 위해 잔인한 짓을 서슴치 않는 범죄 조직을 꾸리는 엄마(김혜수)의 이야기로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혜수는 “나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믿지 못했다”며 “그러나 여배우로서 어떻게 보일지 단 한 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배역을 만났다는 게 연기 생활 중에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토”에만 집중할 수 있어 짜릿했다”며 “촬영하는 동안 정말 나한테 새롭고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느꼈다”고 덧붙였다.

“은교”로 단박에 충무로 기대주로 떠오른 배우 김고은은 이번 영화에서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빈다.

김고은은 “다른 캐리커나 영화를 참고하기도 시나리오를 일일 앞에 후회와 변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여자들을 열심히 봤고 감독님과 사전에 많이 만나서 대화했다”며 “이전



영화에서 이미 힘든 작업을 많이 해 이번 영화가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본을 쓰고 영화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은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며 “기괴한 착안한 이미지가 코인로케에 버려진 아이와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민자 여자였고 그에 현실적인 감각을 덧붙여 대본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 감독은 “인물들이 비슷한 장르에 나오는 비슷한 악인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랐다”며 “평소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며 큰 일 앞에 후회와 변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여자들을 열심히 봤고 감독님과 사전에 많이 만나서 대화했다”며 “이전

연습